

전주역사박물관 2017 주요업무계획

역사문화 창달 '전주정신' 확산 주력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전주역사문화 창달을 위하여 올 한해는 '전주정신'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정신'은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함께하는 '대동', 문화예술을 애호하며 품격을 추구하는 '종류', 의로움과 바름을 지키고 숭상하는 '윤공음',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창출해가는 '창신'의 정신이 담긴 것으로 일명 '꽃심'으로도 불린다.

박물관이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는 전시·연구·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시로는 타 기관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소장유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유물을 전주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박물관 교류 특별전> '나비스패, 인도'을 개최한다.



▶ 전주의 정체성 조명

전주역사문화 특별전 '꽃심의 도시' 주제로

▶ 전주역사 체계화

전주학 학술대회 마련
전주학연구 11집도 발간

▶ 교육프로그램 다채

박물관과 함께하는 1박 2일
전주재발견 현장답사도 진행

안, 순창 민일사, 진안 마이산 등 '전북지역 태조유적'을 주제로 해, 전주와 전북이 조선왕조의 발상지임을 인식시키고 이와 관련된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전주학 관련 주요 연구 성과물들을 집대성한 정기학술지 '전주학연구' 11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은 강좌 및 답사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전라도를 관할한 전라감영 강좌를 통해 조선시대 지방 통치체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북과 전주인으로서의 자세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박물관과 함께하는 1박 2일' 특별답사는 전주와 조선왕실에 관련된 태백산 사고와 조선왕조실록, 정조의 수원화성 중심으로 유적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남고산성, 조경단, 위봉산성 등 전주 및 전북도

에 위치한 조선왕실관련 답사를 통해 전주와 전북지역의 지역사 인식을 제고시킬 '전주재발견 현장답사'도 박물관 교육 예정에 있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토요박물관 나들이를 비롯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학기제 전면도입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이해와 박물관에서의 학예사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배우보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전주역사문화 특별전>은 전주의 정체성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시로 '꽃심의 도시, 전주'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신소장품 특별전>은 구입·기증으로 새롭게 확보된 박물관의 소장품을 선보이며 <민속 문화 특별전>은 미리 만나보는 2018년 '무술년 개띠 해 특별전'으로 개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살펴본다.

연구는 고려시대 전주의 역사문화와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역사를 체계화할 <제19회 전주학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전주학총서>는 전주 경기전, 임실 삼이



김 원 'rumor' (왼쪽), 박성애 '어먼입' (가운데), 소보람 '눈동자 넓이의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 (오른쪽).

전북도립미술관 을 상반기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선정

회화·김원·영상 애니메이션·박성애·설치미술·소보람 등 3명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2017년도 상반기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로 김원·박성애·소보람 작가를 선정했다.

김원(회화) 미술가의 작품은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신선한 감각으로 담아내면서 전통회화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김 작가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6 김원 4회 개인전 community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전북예술회관,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을 비롯해 2016 광주비엔날레 기념전 '컨템포러리 아트 닷빛 미래를 열다' 등에서

전시를 펼친 바 있다.

박성애(영상 애니메이션) 미술가는 애니메이션과 회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슬모없이 버려진 파편들에 대한 기억을 추스르는 독창성이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작가는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했다.

소보람(설치) 미술가는 공간의 역사, 사회에 대한 흔적들을 해석해서 설치작품으로 담아내는 조형언어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

술과를 졸업했다. 2016 눈동자 넓이의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과 404에 관한 지질학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들 작가 3인은 내부추천으로 입주가 결정된 이가립 작가와 함께 오는 2월부터 6개월간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017년도 상반기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심사위원으로는 이진용 군산대 명예교수, 한봉림 원광대 명예교수, 유휴열 원로미술가, 강신동 전북미술 지회장, 박해경 서신갤러리 대표, 전북도립미술관 장석원 관장과 이문수 학예연구팀장이 참여했다.

군산 설 명절 전통놀이마당 이벤트

군산시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군산 대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과 귀향객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설 명절 전통놀이마당' 이벤트를 실시한다.

군산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되는 전통놀이마당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근대복장을 입고 주요 명소 관람 및 전통놀이 참여를 통해 근대군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기획됐다.

전통놀이마당은 군산의 대표관광지인 초원사지관 인근을 방문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방문객 누구나 근대복장을 착용하고 1930년대 근대문화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 "전북을 전통놀이 체험 1번지로"

시군 특화 체험 등 8가지 정책과제 제시

전북연구원은 전북을 '전통놀이 체험 1번지'로 만들자는 정책 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한국 체험 1번지 전북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서 전통놀이를 강조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장세길 박사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놀이를 핵심 분야로 설정한 신전통문화전략을 본격화해 전통놀이의 현대적 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박사는 주민들이 전통놀이를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무주나화놀이 등을 사례로 들며 "전통놀이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전북을 전통놀이 대표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전라북도 전통놀이 진흥전략 구상연구'를 통해 1936년 기록부터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전승되던 전통놀이가 142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전북의 특색이 강한 전통놀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문화자원화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에는 전통놀이의 보존·계승·활용이라는 정책방향과 함께 '전라북도 전통놀이 대표목록 작성',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공동체 육성', '시군 특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경연형 전통놀이 전국대회 개최', '집단놀이의 관광 축제화', '전통놀이진흥센터' 등 8가지의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또한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전통놀이로 '각쟁이 옷놀이', '춘향이 그네', '기잡놀이', '아기줄다리기', '전통쌈매'가 제시됐다.

장 박사는 "전통놀이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계승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강한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기초조사 등 우선해야 한다"면서 "문헌을 통해 파악된 142개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한 뒤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할 종목을 선택해 종합적인 진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공연 & 전시 ◀

내달 1일 군산예술의전당 'Hello!! 아프리카전'

미지의 땅 아프리카의 예술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겨울방학 특별기획전시 'Hello!! 아프리카展'이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프리카의 목조각, 가면, 그림, 악기 등 200여 점이 전시되며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체험전시로, 특히 서아프리카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생활풍습을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Hello!! 아프리카展'은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작품과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대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300년 이상 된 마하고나무 통나무 조각, 정통 목공예작품, 목조각, 사냥을 기원하거나 장례식 및 축제에 사용됐던 마스크, 아프리카 유명 작가들의 모래그림 등 희귀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시는 도슨트(해설자)의 설명과 함께 아프리카 가면 만들기, 정통악기 짚배교실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져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월 24일과 25일 영국 희극작가 레이쿠니 작품, 대한민국 450만 관객을 동원하며 20년째 장기 공연중인 코미언극 라이어 3탄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23일)

<p>▶ 쥐띠 4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해결된다. 60년생: 바쁘게는 하나 공이 없으니 공허함이 크다. 72년생: 큰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무난한 하루가 될 듯. 84년생: 이성과의 일로 신경 쓸 상황이 발생하니 속마음을 오픈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 소띠 49년생: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이 되돌아오는 운이니 덕을 배풀어라. 61년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운. 7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이성간의 화합이 잘 되는 운이다.</p>	<p>▶ 호랑이띠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처음에는 원망하나 나중에도 고마워할 일이 생기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라. 74년생: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p>	<p>▶ 토끼띠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날이다.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p>
<p>▶ 용띠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되도록 일찍 움직여라. 6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시비가 발생한다.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88년생: 자신보다 어디라고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라.</p>	<p>▶ 뱀띠 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지는 흉한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익숙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보아라. 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살 수 있다.</p>	<p>▶ 말띠 54년생: 특이 될 것이 없으므로 이성간의 트러블을 피해라. 66년생: 금전운이 좋아진다. 78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다. 90년생: 동기간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으나 적대감을 갖게 되면 경쟁자로 돌변한다.</p>	<p>▶ 양띠 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이니 토크쇼를 찾아라. 67년생: 작은 것을 얻었다고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 상할 일이 발생한다.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이진다.</p>
<p>▶ 원숭이띠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도모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p>	<p>▶ 닭띠 57년생: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69년생: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상대가 자신과 다를까를 인정하라. 81년생: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 93년생: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말실수를 조심하라.</p>	<p>▶ 개띠 46년생: 매사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기분 좋은 운이다. 58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7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 중간 막히게 되니 주의하라. 82년생: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마라.</p>	<p>▶ 돼지띠 47년생: 금전적으로 나쁜 운은 아니나 욕심은 화를 부르는 주의가 필요하다. 5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마라. 71년생: 투자나 투기는 금물. 금전을 주고받는 일도 불리하니 삼가라. 83년생: 문서에 좋은 운이 들어온다.</p>